청춘들과 소통하는 콘텐츠로 완전무장

전북대 출신 공연기획 스타트업 '청춘, 그리다'
내달 12일 익산서 8천명 규모 뮤직 페스티벌 열어

뮤직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청춘, 그리다' 전북대 학생들.

오는 10월 12일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8천명 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대규모 뮤직페스티벌을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부터 진행까지 도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북대학교 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공연기획 스타트업 '청춘, 그리다' 팀이다.

왕기령(경영학과 4년) 대표를 중심으로 양중은 학생(경영학과 4년) 등 20대의 청년들이다. 2017년 청년 문화기획사인 '청춘, 그리다'를 시작한 이들은 '청춘, 그 시절 모든 것을 콘텐츠로 공유하다'를 모토로 따뜻한 울림이 되는 콘서트, 페스티벌, 강연, 박람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그동안 '멜로망스'와 '폴킴', '데이브레이크'와 같은 아티스트와 함께 전북에서 연이어 성공적인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연팀을 직접 찾는 등 발품을 팔아가며 공연 가격은 낮추면서 청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로 무장했다. 관객과 아티스트의 소통이 잘 이뤄진다는 호평 속에서 공연기획의 차별성을 키워나가며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레드콘 뮤직페스티벌'에서도 '10cm'를 비롯해 '데이브레이크', '소란'을 필두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정승환', '김나영', '샘김', '정세운', '디에이드', '윤딴딴'으로 구성된 9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무대를 꾸민다.

또한 레드콘뮤직페스티벌은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지역아티스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지역 아티스트들의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레드콘(Redcon)음 악창작소 소속 레드콘 3기 뮤지션인 '권선홍', '마인드바디앤소울', '슬로우진', '양범근밴드', '황휘현밴드' 5팀이 제작한 신곡 쇼케이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레드콘뮤직페스티벌에서 울려퍼질 메인 테마송에도 레드콘 3기 뮤지션 5팀의 목소리가 담길 예정이다.

이번 뮤직페스티벌이 특별한 이유는 또 하나 있다. 지역을 포함해 14팀의 아티스트로 이뤄진 페스티벌 티켓 가격이 '38,000원'이다. 일반적인 페스티벌 티켓 가격과 비교한다면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다.

이러한 저렴한 가격의 이유 역시 주최하는 전북대 청년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학업과 진로, 취업 등의 고민에 지쳐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청춘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 때문에 페스티벌의 슬로건도 '어차피 휘발될 청춘이라면 불태우자'로 정했다.

특히 이들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자까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력 있는 청춘들을 등용함으로써 과정과 결과 모두를 잡고 있어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지역 문화발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뮤직페스티벌은 이미 티켓 오픈 당일 4천여 명의 관객을 확보해 큰 성황이 기대된다. 티켓은 멜론티켓, 위메프에서 판매 중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레드콘뮤직페스티벌과 청춘그리다 SNS, 레드콘음악창작소 홈페이지(http://www.redcon.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미래 전력계통인 능동형 배전망 구현

전북대 전력망연구실 연구원들, 대한전기학회 우수논문상 쾌거

전북대학교는 전기공학과 전력망연구실 석·박사 연구원들이 최근 대학전기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상의 주인공은 노승길(석사과정)·유한님(석사과정)·최우영(박사과정, 이상 지도교수 국경수) 연구원.

이들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시계열 모의해석 기반의 배전계통 변동성전원 수용한계 산정 방법'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신재생 발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전력계통에 신재생 발전원 설비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전계통의 실제 운영조건을 고려한 시계열 모의해석을 통해 배전계통의 변동성 전원 수용한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검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이번 논문은 전북대 전기공학과가 한전 전력연구원이 지원하는 에너지클러스터 연구사업에 선정(2018)돼 수행 중인 연구의 결과로, 미래 전력계통이 지향하고 있는 능동형배전망의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는 국내 전기(공학)분야 학술대회 중에서 최대 규모로 2019년에는 산학연 전문가 1천여 명이 1,291편의 학술논문 및 연구개발성과를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수학에 대한 고민, 마음 놓고 털어놔요"

전북수학체험센터 '찾아가는 수학클리닉' 운영… 오늘부터 신청

도내 초·중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관심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북과학교육원 수학체험센터는 오는 10월 11~31일까지 '2019 찾아가는 수학클리닉(2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4~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수학클리닉은 수학에 고민이 많은 학생이 사전 신청을 하면 지도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1대 1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사전 설문지 받아 이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 실효성 있는 상담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북과학교육원 홈페이지(http://jise.kr/index.jsp)에 접속, 수학체험센터→ 수학클리닉 안내→ 2019 찾아가는 수학클리닉 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0월 9일 오후 5시까지다.

수학체험센터 담당자는 "수학 공부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현직 교사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김승환 교육감은 26일 전주 우림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진행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에 참여했다.

도교육청과 전북지방경찰청·전북도청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시민경찰 관계자 등 130여명이 함께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10~50분까지 약 40분간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며, 시민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렸다. 또, 스쿨존 이동식카메라 단속을 참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의 보행지도를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도민들의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시설 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방법 개선 위한 수업컨설팅 특강 실시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가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컨설팅 특강'을 개최했다.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CTL)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컨설팅 특강'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다양화된 촬영지원 유형 및 실제적인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로 이뤄졌다.

한편, 호원대는 2009년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처음 수업컨설팅을 도입했으며, 이후 꾸준히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신규임용교원과 승진대상교원, 강의평가 하위교원의 필수참여를 제도화해 교원의 생애주기별 맞춤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업컨설팅이 교원의 교수역량 강화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효과 증진에도 기여함을 확인하고 교수업적 평가 점수에도 반영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1학기에는 수업촬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셀프촬영을 추가하고 본인의 수업영상을 스스로 보고 진단할 수 있도록 '자기수업 성찰지'를 제공했고, 참여한 교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더불어 심화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교원에게는 수업컨설팅 전문가와의 미팅을 통해 수업영상을 분석하고 교수·학습방법에 도움이 될 다양한 팁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교수들은 "수업컨설팅 참여를 계기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수업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며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고민해보고 자신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우리 대학은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총장님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수업개선 노력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전북 · 대전 중등 수석교사 합동 워크숍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수석교사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북·대전 수석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갖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그동안 진행된 창의적인 수업에 대한 소감나누기, 수업컨설팅 및 사례발표를 통해 수석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타시도와의 교류를 통해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는 소통과 배움의 시간을 나눔으로써 수석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연수회에는 중등 22명, 고등 12명 등 전북 수석교사 34명과 대전 수석교사 25명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 특강 및 나눔의 장 ▲전주문화관 및 한(韓)문화관 견학 ▲전주의 멋 체험 한마당 ▲마당극과 함께 하는 인문학 ▲전주 역사기행 등으로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대전 지역 중등 수석교사들의 수업 및 활동 사례를 공유해 수석교사의 역량 강화하고, 향후에도 타시도와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해 수석교사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